**성모 승천 대축일(2018년 8월 15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요즘 저희 성당에 장례 미사가 많습니다. 장례식이 가장 많은 계절은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이 위령 성월이 되었나 봅니다. 11월에 돌아가시는 분이 가장 많은 이유는 아마 환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임종에 다다른 분이 아마도 체력적으로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신체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계절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나 봐요. 요즘이 계절이 약간 변하기 시작하는 시기인가 봅니다. 갑자가 장례식이 많아 졌어요. 지난주에 두 건의 장례미사가 있었고, 어제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미국 성당은 신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난히 장례미사가 많은 성당입니다. 많을때는 일주일에 세번씩, 혹은 하루에도 두번씩 할때도 있습니다.   
  
장례미사를 많이 하다보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젊어서, 혹은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허무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죽음은 결코 허무하거나 불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신앙, 이것이 성모님의 승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승천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경험과 삶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동시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당시의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가 갑자기 죽어버리자 두려움과 절망에 싸여 숨어 지냅니다. 어두운 방안에서 방문 꼭꼭 걸어잠그고 지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은 환시도 아니었고, 잠결에 본 환몽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나서, 무서움에 벌벌 떨며 지내던 이 제자들이 꼭꼭 닫아 두었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서 뛰쳐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립니다. 스승 예수님이 살아 돌아왔다고.  
  
이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초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제는 두려운 것도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서 부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됩니다. 이 믿음이 수십 세기가 지나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성모 마리아의 삶입니다. 성모님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려서 부터 유다교의 집에서 태어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순수하고 순박한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아들 예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갖은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고 살아 갑니다.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살아남은 제자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죽은 아들 예수의 생애를 다시 기억하고, 성찬의 전례를 재현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 여기저기로 떠돌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을 전하고 다닙니다.   
  
어느날 스승 예수의 어머니였고, 공동체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잠든 것처럼 평온하게 누워있다가, 며칠 째 깨어나지 않더니, 예수님이 몇년 전에 눈 앞에서 승천하던 그 모습과 똑같이 구름에 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겪었던 일들이 전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교회의 거룩한 전승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면, 성모님의 승천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승천하고, 하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충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미래의 운명입니다.  
  
오늘 복음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만나는 장면이죠.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옛 백성, 즉 구약 시대의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 즉 신약 시대의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죠.   
  
성령을 가득 받은 두 여인의 만남. 기쁨과 환희가 가득합니다. 이 두 여인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화답합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이 두 여인이, 평생 신앙 만을 간직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약과 구약의 하느님 백성을 대표하는 여인들이고, 이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가득 받습니다.  
  
루카는 마리아를 일컬어서,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신 분,’ ‘주님의 어머니,’ ‘믿으신 분’ 이라는 최고의 찬사와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단순히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으리라는 그 엄청난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니피캇 (Manificat)’으로 잘 알려진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구약을 요약했다고 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위업을 찬미하고, 그 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희망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꿈과 희망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충실한 신앙은 승천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늘 나라에서 우리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에는 하늘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